

사망과 생명

롬 6:20~23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흔히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몹시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성경구절을 읽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장로님이 회개하고 기쁘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멸망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예수를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은 멸망, 곧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를 해서 사망을 받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심판받을, 멸망 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사리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는 생명으로 만드셨지 죽게 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죽음의 존재요, 심판의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반대 개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죽음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떨어져 나간 인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지만 불행하게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유도했던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오기 전에 죄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

사탄은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불순종 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라는 멍에를, 굴레를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갑을 찬 사람을 봅니다. 죄를 지으면 수갑을 찹니다. 수갑을 채워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끈으로 사람을 꽂꽂 묶을 수도 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를 붙여서 말도 못하게 하고 자동차 뒤 트렁크에 집어넣어 몇 시간씩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해서 10년, 20년 동안 햇빛도 못 본 채 지하실에서 동물처럼 살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죽음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인간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여 꽂꽂 묶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도록 죽음, 질병, 고통, 눈물, 한숨, 좌절 같은 것으로 기가 막히는 인간을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축복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없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으며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인간으로 변신하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 인간,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인간을 죄라는 사슬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가 박탈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의의 통치를 받을 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가 박탈당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을 성경은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통치력을 잃어버렸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제할 어떤 힘이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막아내는 의의 힘, 하나님의 힘, 생명의 힘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죄가 주장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죄와 악의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가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을 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종노릇을 할 때 너는 어떻게 되는가?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열매는 한결같이 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열매, 원하지 않는 열매, 죄를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 의의 힘이 없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죄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열매는 실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스물한가지 악에 대해서 소개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생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누가 와서 끊을 수 없는 그 사슬을 전부 끊어주신 것입니다. 수갑을 풀어주시고 입에서 테이프를 벗겨주시고 몸을 칭칭 감은, 아무 누구도 풀 수 없는 쇠사슬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슬,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면, 뇌의 기능이 멈추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의 종이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는데 계속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공책으로 “지금은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하며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고 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그 능력으로 죄의 사슬을 모두 끊고 마귀의 세력을 끊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해방, 자유, “내 몸이 쇠사슬에서 풀렸다”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선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 전체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내용이 22절입니다.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반쪽입니다. 구원의 전부는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내 육체를 부숴버린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에게 있는 생명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은 특이하게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막겠습니까? 입을 틀어막는다고 막아질까요? 눈을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기쁨은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화와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거룩함,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흠 없고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부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꿈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거룩해 질 것입니다. 의롭고 완전해 질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국민학교 학생에게 미분, 적분을 풀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준에 맞게 이끌어 가듯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한걸음 한걸음 당신의 그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그 형상대로, 이상대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제 발로 돌아오도록. 스스로 변하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망나니 같이 살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에베소서 2장 19,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의의 열매를 갖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갈림길이 구원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를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가를 스스로 물어 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 죄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를 알 수 있습

니다. 희미한 상태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이 희미한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수상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압니다.

죄의 삯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망과 생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영생과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물며 죽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을 다 끝내고 죽는다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냐는 분명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 15절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이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두 갈림길에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죽음이 아닌
축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

<http://file.onnuritv.com>